

국정원 국조 청문회 무산... 여야 “네탓공방”

특위, 16일 원세훈·김용관 청문회... 동행명령 발부

민주당, 또 증인신문 무산땀 전면 장외투쟁 가능성

국가정보원 댓글사건 규명을 위한 국회 국정조사특위의 14일 청문회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관 전 서울경찰청장의 불출석으로 무산됐다. 이에 특위는 오는 16일 청문회 개최와 두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했으나 이 과정에서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벌였다.

공방이 격화되면서 감정 싸움 양상으로 번졌으나 여야는 가까스로 16일 원·김 두 증인에 대한 청문회와 동행명령장 발부를 가결했다. 하지만, 홍준표 경남지사처럼 국회 동행명령장이 발부됐음에도 증인 신문이 이뤄지지 않은 전례가 있어 실

제 원·김 두 증인이 증언대에 설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민주당은 불출석시 여야가 고발하는 것을 문서로 보장하라는 입장이고, 새누리당은 ‘동행명령은 수사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는 행사할 수 없다’는 법 규정을 들어 ‘불가’를 고집하고 있다.

만약 16일에도 ‘원·김’ 두 증인신문이 무산되면 민주당은 오는 17일 촛불 집회를 통해 본격적인 장외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전망이다. 당 관계자는 “김부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의 증인채택도 물 건너간 상황에서 중요한 두 증인의 심문마저 무산되면 두 달 넘게 국조특위에 매달리고도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하게 된다”며 “따라서 더 이상 허울 뿐인 국조를 끌고 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차원에서 장외투쟁 행을 결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류에는 ‘원·김’ 청문회가 불발된 가운데 나머지 증인을 대상으로 19일 청문회를 진행해봤자 새누리당이 ‘국정원 여직원 감금 및 매관매직 의혹’을 부각하면서 ‘물타기’를 시도할 것이라는 판단도 깔려 있다. 민주당은 이미 10일 촛불집회에 참여, 장내·외 투쟁을 병행하고 있다. 만약 민주당이 장외로 나가면 9월 정기국회 파행으로 이어지고, 정국은 10월 보궐선거 이후까지는 정상화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정청래 국정원 국조특위 야당 간사를 비롯한 야당 위원들이 14일 오후 국회에서 전체회의가 시작되기에 앞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관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출석을 촉구하는 피켓팅을 벌인 가운데 권영세 여당 간사가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가 라운지

이낙연, ‘장애인 전동스쿠터 등 면세법’ 발의

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14일 장애인의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에 대한 세금을 면제하는 내용의 관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장애인의 대표적인 이동수단인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는 휠체어, 지팡이 다음으로 지체·뇌병변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보장구”라며 “장애인



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면세해 주겠다”고 지적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장애인 전동스쿠터와 전동휠체어의 관세 및 부가세가 면제된다.

이용섭, ‘선출직 공직자들의 리더십’ 강연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4일 오후 장성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21세기 장성 아카데미’ 특강에서 ‘선출직 공직자들이 갖춰야 할 리더십’을 주제로 강연했다. 이 의원은 이번 강연은 지난 2005년 12월 청와대 혁신관리수석비서관으로 재직했을 당시 ‘정부혁신의 방향과 성과’에 대한 강연 이후 두 번째다.



주주의의 꽃이 무참히 꺾여버린 엄청난 사건이므로, 반드시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책이 마련돼야 하며, 이제 정국 정상화를 위해 대통령이 나서서 국정난맥의 매듭을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이 의원은 이날 국정원 사건과 관련,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민

박지원 “DJ 정신의 핵심은 행동하는 양심”

DJ서거 4주기 맞아 광주 특강

남북화해와 협력 활성화 시·구의 원 연구모임(대표 문상필 광주시의원)은 14일 고 김대중 대통령 서거 4주기를 맞아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를 초청해 ‘김대중 정신과 남북관계 그리고 우리는’이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열었다.

5대 위기가 우려된다”라며 “김대중 대통령 정신의 핵심은 ‘행동하는 양심’이며,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도 행동하는 양심이 필요한 때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남북관계에 대해 “개성공단은 남북정상회담의 산물이며, 한반도 경제 평화협력의 상징이다”며 “꼭 개성공단 회담을 성사시켜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는 것은 물론, 금강산 관광과 이산가족 상봉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

박 의원은 이날 특강에서 “MB정부에 이어 현 정부도 민주주의, 남북관계

민주, ‘장준하 진상규명 특별법’ 제정 추진

민주당 장준하선생 의사사 진상규명위원회는 14일 고(故) 장준하선생 의사사 등의 사건을 정부 차원에서 진상규명하도록 하는 내용의 ‘장준하선생 등 과거사건 진상규명과 정의의 실현 특별법(이하 장준하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역사의 발전과 민주주의의 성장을 억누르고 있던 독재와 권위주의 시대의 껍데기를 벗겨야 한다”

며 “장준하 선생을 살해했던 범인과 그 배후를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법은 장준하 선생의 사건을 재조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많은 미해결 의문사 사건들, 독재정권의 국가폭력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문과 옥살이를 당한 분들의 진실도 밝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여야 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이달 중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kipark@kwangju.co.kr

정치권 ‘복지증세’ 논쟁 다시 불붙나

정부 ‘중산층 증세’ 논란 계기 증세론 수면위 재부상

輿論각 ‘증세 커밍아웃’... 심상정 대표도 공론화 의장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불붙었던 증세논쟁이 최근 정부의 세계개편안 파문을 계기로 정치권에서 재점화되고 있다. 지난해 일부 대선주자들이 복지공약 재원조달 차원에서 언급했으나 역풍에 대한 우려 때문에 공론화되지 못했던 것이 박근혜정부의 첫 세계개편안 발표 이후 수면 위로 재부상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세계개편안이 원점 재검토 사건 이후 일각에서 증세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했고 민주당도 내용은 다르지만 증세를 조심스럽게 거론하고 있다. 특히 새누리당 내에서는 “박근혜 정부의 복지공약을 이행하려면 증세는 불가피하다”는 대전제 아래 차제

에 증세 문제를 제대로 검토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아직 진이(진이명박)계 당 내부 일각의 의견이 표면화되는 단계이지만 같은 환경을 국민에게 ‘고백’하고 증세를 검토하거나, 일부 복지공약을 수정 또는 순위 재조정하는 주장이 공개적으로 개진되기 시작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14일 “국민의 눈을 속이려 할 게 아니라 실현 가능한 복지 수준을 솔직히 밝히고 국민부담 증가에 대해서도 말해야 한다”며 복지 증세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윤섭 의원은 “저부담 저복지”에서 ‘적정부담 적정복지’ 국가로 전환

면 세금을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솔직히 얘기하고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증세론은 일단 소득 최상위층과 대기업을 ‘타깃’으로 잡고 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복지 증세에 관한 우리의 일관된 입장은 조세 부담률을 올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참여정부 이상의 수준으로 조세부담률을 올려야 한다는 생각인데 그것이 지금 세법 기준으로는 증세가 된다”고 말했다. 이윤섭 의원은 “저부담 저복지”에서 ‘적정부담 적정복지’ 국가로 전환

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재정구조 개선과 부자감세 철회가 선행된 다음에 보편적 복지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부족한 세수는 국민적 동의를 얻어 보편 증세로 메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정외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증세론을 가장 정면으로 내세웠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을 하고 ‘복지 증세를 위한 정치권 공동선언’과 ‘국회 복지증세특별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설득하는 것이 정치권의 책임인 자세”라며 “세계개편 오류를 전회위부의 계기로 삼아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한 전면적 조세개혁 논의에 착수하자”고 제의했다. /박지경기자jkipark@kwangju.co.kr

2013년 10월 1일
**용봉동 17-1번지 하미스포렉스가
 굿모닝타운으로 새롭게 탄생합니다.**
 3.3㎡ 당 임대가 200만원
 분양가 250만원 각 과목별 집합 의료타운

187P×200만원 = 임대가 3억7400만원
 분양가 4억6750만원

지상5층	501호 내과 502호 치과	지상6층	601호 안과 602호 이비인후과
지상7층	701호 성형외과 702호 산부인과	지상8층	801호 피부, 비뇨기과 802호 영상의학과
지상9층	901호 한의원 902호 소아, 청소년과	지상10층	1001호 재활의학과 1002호 가정의학과
지상11층	1101호 신경외과 1102호 정신의학과	지상12층	1201호 정형외과 1202호 향문외과

행복한 부자를 위한 자산관리 전문회사
주식회사 에셋코리아
 임대·분양 문의 : 062)252-0099

**시네마 (CGV) 계약완료! 골프장 계약완료!
 볼링장 계약완료! 수영장 계약완료!**

파격적인 임대가 & 분양가

지하2층~지하1층	수영장(사우나,헬스) 계약완료	지상2층	PC방 203P
지하1층	음식점(중식, 베트남국수) 306P	지상2층	레스토랑 166P
지상1층	농협지점,하나로마트 845P	지상2층	볼링장 계약완료
지상1층	지상1층 현대폰매장 22P	지상2층	한정식 387P
지상1층	미용실 23P	지상 2층~3층	골프장 분양완료
지상1층	약국 69P	지상3층	일식 387P
지상1층	베스킨라빈스 44P	지상 3층~4층	영화관(CGV)계약완료
지상1층	롯데리아(맥도날드), 드롭탑 540P	지상4층	패밀리레스토랑 387P

Good Morning Medical Town
굿모닝메디컬타운

Good Morning Sporenter Town
굿모닝스포터타운

상업용부동산 임대관리 전문회사
유한회사 케릭스